

성폭력 내규 시행 평가

발신: 의과대학 학생회장

수신: 총학생회

0. 들어가며

-지금의 실사가 방증이라는 문제로 학생회차원에서 그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학기 중간에도 성폭력 내규 시행에 대한 실사를 설문지 등을 통해 벌여나가 학우 대중에게 좀더 접근하도록 하고 실사가 좀더 생산적인 논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성폭력 내규에 대한 단위에서의 논의

-예전에 비해서는 활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노동현장활동이나 환경현장활동, 농촌현장활동 등 현장 활동 전에는 학우들과 논의를 진행하였고 신입생 수련회에서도 먼저 이 내규가 설명이 되었고 신입생들과도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학기 중에는 이런 논의가 일어나지 않아 단지 일회성에 그치는 면이 나타났습니다.

평가 및 대책 => 단위에서의 지속적인 논의로 성폭력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2. 성폭력 내규의 적용 사례

①신입생수련회의 촌극에 적용

-신입생 수련회에서 촌극에 성폭력 내규를 적용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조기에 설명하였고 이에 관한 위반은 없었습니다.

②현장활동에 대한 적용

-단위에서 참여하는 모든 연대단위에 이 성폭력 시행세칙을 설명 드렸습니다. 연대라는 관점과 성폭력은 당연히 추방해야 한다는 보편적 도덕적인 관점에서 설명 드렸고 이는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위반은 없었습니다.

③자료집에 적용

-의대 학생회에서 사업에 쓰는 모든 자료집에 성폭력에 관한 내규를 쓰도록 하였으나 이는 일부만 지켜졌습니다. 다음에는 이 부분을 좀더 보완하여 일상적인 논의와 성폭력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및 대책=> 학우들이 이 문제에 관한 낯설음은 없어 졌으나 역시 일상적인 적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단위 학생회에서 대책을 세워 좀 더 일상적인 논의로 끌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성폭력 내규에 대한 단위의 이해

평가 및 대책=> 사실상 이해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시행세칙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있으나 심도 있는 토의 없이 괜히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정해진 내규를 모두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논의라기 보다는 공지의 자리가 되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성폭력에 대해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가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4. 올해의 목표

- ① 일상적인 평가가 진행되도록 한다.
- ② 적극적인 논의가 진행되도록 한다.

5. 평가를 마치며

- 의대 단위에서는 학생들에게 이제 성폭력 내규라는 것은 색다른 시도가 아닌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제는 이런 내규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아래에서 위로의 논의와 실천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논의의 자리를 저희 단위학생회에서 갖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실행에 있어 총여학생회에서 많은 도움주시리라 믿습니다. 평가의 방향을 잘 몰라 임의로 하였습니다. 다음의 평가에는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좀 더 많은 대중의 의견을 가지고 평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